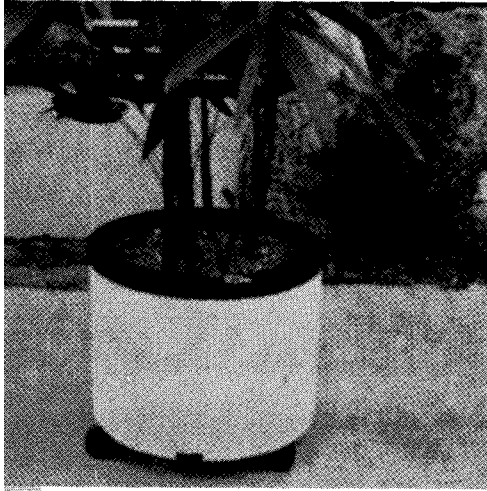


제 90 회

8月 10日,

- … 본회가 주최한 第90 …○
- … 회 發明教室이 지난 …○
- … 8월 10일 發明장려관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 … 後 1時 30분에 開催 …○
- … 되는 發明教室은 이 …○
- … 달에도 1백여명이 참 …○
- … 席하여 盛況을 이루 …○
- … 었다. 이날 發明教室 …○
- … 에서는 옥초화분 박 …○



급수통이 부설된 이중화분 발명가

옥초화분 박사홍 사장

평생을 발명 활동으로 보낸 박사홍 사장은 집에서든 무공해식품을 길러서 먹을 수 있고 이동이 편리한, 급수통이 부설된 이중화분을 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발명장려관에 전시중이기도한 이 발명품은 금년 11월 독일에서 열리는 뉘른베르그 국제발명대회에 출품하기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박사장의 발명 활동은 그의 나이 7~8세의 일제시대부터 시작된다. 노예 생활같은 식민

지 국민의 서러움과 분함을 박사장은 연구 노력으로 보상 받았던 것이다.

일본인들보다 앞서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6.25를 거치며 현재까지 발명한 물품은 셀 수 없을 정도.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말꼬리 탈색제, 매니큐어, 유화필 등 자신의 발명품으로 사업을 벌여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던 박사장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어온 것이다.

「6.25사변 때에는 떡장사를 해서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연구비와 사업실패에서 오는

타격 등으로 극빈자 중의 극빈자로 취급되기도 했었지요.」 어려운 생활을 겪어오던 1984년, 마라톤 대회를 지켜보던 박사장은 또다시 발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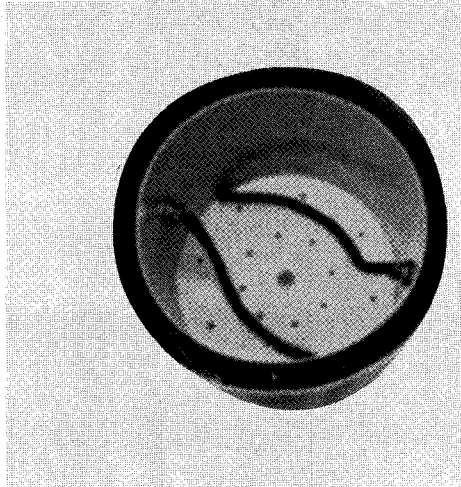
행사를 경축하기 위해 가로에 놓인 화분의 화초가 오래가지 않고 빨리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본 것이다.

「물을 한번만 주면 시들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항상 적정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화분을 생각했던 거죠.」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사흥 시장의 成功事 …○
- … 例 發表에 이어 金寬 …○
- … 衡 本會 상근 이사의 …○
- … 「발명의 창출과 사업」…○
- … 에 대한 강의와 洪載 …○
- … 日 辨理士의 「産業財 …○
- … 産權制度」에 대한 강 …○
- … 의와 토론이 있었다. …○
- … 發明家の 成功事例를 …○
- … 간추려 소개한다. …○
- … <柳泰洙記>…○



2년만에 걸친 연구끝에 드디어 급수통이 부설된 이중화분(실용신안 제 42775호)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박사장.

그가 연구하는 동안 실험용으로 쓰인 밥통만 해도 수십 개이고 나중에는 버려진 밥통을 찾아다녀 사람들에게 거지로 오해 받기도 했다.

끈질긴 연구로 완성된 이중화분은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 외에 수 많은 장점이 있다.

물받침이 필요없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아 청결하며 비료나 예방약을 물에 타서 주면 편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특수한 재질을 사용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파손이 없고 바퀴까지 달아 이동이 편리하도록 고안했다.

안과 밖의 통 사이에 물을 넣고 심지를 통해 물을 공급

하는, 간단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발명을 한 박사장은 특유의 집요한 노력으로 많은 난관을 극복했다.

『제품을 완성하고 나서 화초를 길러 보았습니다. 20일이 지난후에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뿌리가 하얗게 썩고 있더군요. 화초 뿌리가 심지를 뚫고 물통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뿌리가 밖으로 나와 물에 잠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놓고 10여 일을 잠도 못자고 고민하던 박사장은 드디어 해결 방안이 떠올라 혼자 큰 소리로 웃었다.

물을 공급해 주는 안쪽과 바깥쪽의 중간 심지 부분에 쇠를 넣고 볼트와 너트로 조여 주었는데 뿌리가 심지를 통해 물통으로 침투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해 줄 수 있었

던 것이다.

일단 특허로 등록되면 그 발명품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는 발명가도 있지만 박사장은 개선에 개선을 거듭했다.

『앞으로도 이 이중화분의 문제점을 더 개선하겠어요. 수량계 바늘이 위에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와 바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이고 급수통을 자바라식으로 만들고 한가지 모델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화분을 연구, 개발할 것입니다.』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단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에 대한 연구 개선을 다짐한 박사장의 얼굴에서는 외길 인생을 살아 온 사람만의 특유의 집념이 엿보였다. <♣>